

“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성도가 어떻게 대담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토록 많은 위험과 위협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온한 마음을 갖고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탄복과 기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근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시간의 그림자를 앞질러 가고 영원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산 사람이다. 그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강하고 굳세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 깊고 즐거운 평안을 체험하였다.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담대하게 사는 기술 즉 속사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한여름의 곤충처럼 짧은 인생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 당연한 현세에만 너무 갇혀서 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몸에 매여 있고 그날의 환경에 갇혀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매이는데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의 총명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면 요단강 저편에 이르기 전에 이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대격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죽음을 땅에 있는 그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한다. 멸망이나 멸절이라 하지 않고 즉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자신이 잠시 거주하기 위해 그럭저럭 꾸러가던 장막을 접은 정도에 비유하고 있다. 그 이후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음 없이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했지만 그 일은 기꺼이 주님 손에 맡기고 주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 사도는 자신이 입고서 살고 있는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 장막 깎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바울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을 인생의 몸으로 비유한 것이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와서 쳐도 무너지는 장막처럼 미세한 유독물 질이나 하찮은 것이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다.

이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시달리지 않고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거추장스러운 틀이 해체되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와 같이 겹질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게 못하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그러나 죽음이 이 겹질을 깨트린다. 부화한 햇병아리가 겹질 깨진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집 없이 떠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지체함 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무너질 장막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대저택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게 될 터이니 몸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중세기에 악인들이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도사의 옷을 구입하여 입고 죽었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 집으로 이민 갈 터이니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자.

-한국장로신문 [제 1325호] 2012년 6월 23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1:27-2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 Anthem	Congregation
Sermon	“Wait for Each Other”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하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바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스프로토(브라이, 필리몬, 프란스또, 수레리,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브도, 보디소프, 린록, 수문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민(홍성일(필리우), 이재울(백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연(미디카(브라

	<p style="text-align: center;">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 style="text-align: center;">SEOUL PRESBYTERIAN CHURCH</p> <p style="text-align: center;">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 style="text-align: center;">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 style="text-align: center;">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

“ 경륜의 시대를 분별하라 ”

■ 히 10:1-9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고 본문에서는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경륜의 시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접근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로 해석하여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제도와 제사 제도와 같은 구약 종교에 익숙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시대가 바뀌었다, 더 이상 모세 율법의 제사 제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되었으므로 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처신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옛 언약의 제한성
“율법은 정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므로 옛 언약은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 천 여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제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므로 옛 언약의 실행과 효력은 제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옛 언약에 대해 의미를 찾자면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히 10:3). 따라서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번째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 40:7).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 새 언약
예수님의 죽음은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음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를 출입하는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위엄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그 같은 행위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전의 제사는 반복이었지만 이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륜의 새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맺는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새 언약이 세워진 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 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폐하신 옛 것과 세우신 새 것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성봉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7:28-2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8(시 6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50(24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창10:30; 인 도 자
 12:3; 사55:5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나의 비전과 사명”... 김진섭 목사
 * 찬 송 Hymn580(37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7:17 인 도 자
 찬 송 134(84) 다 함 께
 기 도 노재현 집사
 성 경 막 6:35-4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주님의 계획, 제자의 계산 ... 설 교 자
 * 찬 송 317(35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강은경 권사
 성 경 빌 3:12-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전진하는 신앙”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스테반회 9월 월례회 / 22일(주) 오후 3시2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사망자대회 준비 모임 / 22일(주) 오후 3시30분 후문
3. 학부모기도회 / 28일(토) 새벽기도 후 102호(010-9588-7920)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김진섭 목사 약력 서울대 농대(B.Sci.), 고신 신대원(M.Div.), 미국 Covenant신대원(Th.M.), Dropsy대(Ph. D.) 현, 백석대 평생교육신학원 학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김진섭 목사(백석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 장 례 1. 故 황순자 성도(3교구 김선자 집사의 모친) / 17일(화) 별세, 19일(목) 발인</p> <p>☛ 결 혼 1. 한동현 군(12교구 한준희 집사, 이견희 권사의 장남)과 김한솔 양(김창오 목사, 김의경 사모의 장녀) / 9월28일(토) 오후 12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광림아트센터) 4층 컨벤션 홀(2056-5714) /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 2. 페렌츠 어펠러 성도와 방민영 집사(영어 예배부) / 9월28일(토) 오후 5시 누리시아웨딩홀(585-0777) /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50명	213명	185명	1,248명	12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15일	헌 금	23,957,000	
	특별예배비		878,000
	교회학교운영비		4,309,5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728,900
	통 신 비		82,500
	수도광열비		3,360
	차량유지비		89,000
	사무용품비		24,000
	잡 비		72,900
	환경유지비		196,000
	수선유지비		23,000
	식당운영비		766,400
	합 계	23,957,000	7,423,56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김양언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홍혜란	윤주일	올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 10: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